

20세기 기능주의 패션디자인의 미적 가치와 조형성*

하 지 수 · 김 민 자

세종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전임강사 ·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The Aesthetic Values of 20th Century Functionalist Fashion Design

Ji-Soo Ha · Min-Ja Kim

Full-time Instructor, Dept. of Fashion Design, Sejong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2. 5. 28 투고)

ABSTRACT

The research has the aim of defining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the functionalist fashion design in the 20th century by understanding the essence of functionalism in the sociocultural contexts and studying functionalism in fashion design and architectural and product design by the comparative. Giving careful consideration to functionalist fashion design in the 20th century makes it possible to foresee the way of fashion design to meet the needs of the moderns and men of the future world. To obtain the purposes, documentary study and comparative study have been executed.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unctionalism stressed in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can be defined and categorized using three analogies, mechanical analogy of futuristic quality based on mechanical aesthetics and standardization by mass production, organic analogy in which the perfect beauty of nature is stressed on, moral analogy of fitness for purpose and absence of ornament based on integrity and sincerity. In while, functionalism in 1990s has been developed in different ways from those analogies.

In comparative studies, functionalist fashion design and architectural and product design have the dissimilarity as well as the similarity of formative features. Since fashion design has much closer relation to human body and movements, it has been expressed considering a division of men and women and the places and times for the designs more than other designs.

Key Words: Functionalism(기능주의), Mechanical analogy(기계적 유추),
Organic analogy(유기적 유추), Moral analogy(도덕적 유추)

* 본 논문은 2002년도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I. 서론

지난 19세기말의 상황에 기초하여 20세기초에 대두된 모던 디자인(modern design)은 소위 기능적 순수함이라는 기능주의 이념을 주창하였다. 이는 다가올 기계시대를 위해 오직 과학과 기술의 도움으로 가장 진보된 형태의 디자인에 도달하기 위한 세계관이었다. 20세기 초 기능주의는 건축과 디자인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고, 특히 디자인 제품의 미적인 문제에 일대 혁신을 가져옴으로써 새로운 디자인의 아름다움을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기능주의적 디자인은 그 당시 사회구조 속에서 일반대중에게 값싼 디자인 사용의 기회를 부여했으나, 디자인의 전반적인 형태가 딱딱해지고 획일화되는 경향과 함께 기계화의 영향으로 인간성이 상실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20세기 중반 이후 디자인은 모던 디자인이 추구했던 생산 원리보다는 삶의 의미를 더 중요시하는 경향으로 전개되었으며, 1990년 이후 오늘날의 디자인은 이성과 감성을 절충(blend), 융합(fusion) 시키는 디자인 경향이 지배적으로 나타난다. 즉, 오늘날 디자인은 포스트 모던 구조하에서 지역적인 문화적 특수성 논리와 더불어 기능주의 디자인 이념에 의해서 지배되어왔던 국제적 보편성이라는 양면성을 요구한다. 기능주의 디자인의 부정적인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다양한 디자인 경향 가운데 기능주의는 여전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계속해서 이러한 기능주의 디자인은 새로운 모습으로 인간의 삶 속에서 매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Volker Fischer¹⁾는 오늘날의 다양한 양식들은 각각의 독특한 언어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디자인은 기능주의를 근거로 하고 있다고 하였다. 극도의 미학적 축소화로 특징지을 수 있는 미니멀리스트(minimalist) 그룹, 바우하우스(Bauhaus)와 모던 디자인 운동의 법칙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합리주의자 그룹(The Rationalist Group) 등이 기능주의적 입장을 표방하며 최근 활발하게 활동하는 디자이너 그룹들이다. 이와 같은 최근의 기능주의

적 디자인 경향의 일환으로 기능성(function)과 실용성(utility)을 중시하는 미국 현대 패션디자인이 세계 패션의 흐름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였다.

최근 다시 대두되는 강한 기능주의 경향에도 불구하고, 현대 패션디자인에 관해서 기능주의의 관점에서보다는 주로 기능주의에 역행하는 양식이라는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의의는 20세기 패션디자인에서 나타나는 기능주의를 포괄적 관점에서 재조명하며, 새로운 밀레니엄(millennium)을 맞아 현대인과 미래인의 미적 가치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패션디자인의 방향을 가늠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대상을 1990년대 이전의 패션디자인으로 제한하여, 20세기 기능주의 패션디자인의 미적 가치와 조형성을 밝힘으로써 1990년대 이후 새로이 등장하는 오늘날의 기능주의 패션디자인의 특수성을 밝히는 연구에 대한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

복식은 문화의 일부이기 때문에 복식의 형태 변화와 그 변화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관계를 분석하는 방향으로 연구되어야 하며, 예술 양식사 내지는 인류 문화사, 사회 심리학과 연결 지어 고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20세기 기능주의 패션디자인을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미적 가치와 조형성을 건축 및 제품디자인과의 비교를 통해 고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적으로 문헌을 통해 기능주의를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하여 정의 내렸으며, 이러한 문헌 연구에서 제시된 기능주의 경향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각종 문헌에 실린 작품 사례를 중심으로 하며, 여성복을 중심으로 기능주의 양식의 특성을 지닌 자료를 뽑아 사례를 들어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20세기 패션디자인에 나타나는 기능주의를 건축 및 제품디자인에 나타나는 기능주의와 비교하여 고찰하였다.

II. 건축 및 제품디자인에 나타난 기능주의

1. 기능주의에 대한 유추

기능주의 미학의 뿌리는 고대, 중세에서부터의 철학과 미학 속에서 분명하게 발견되고 있으며, 기능주의 사상의 활력은 다양한 환경에서 발전해 왔다고 하는 사실은 이미 입증되어 있다. 다양한 학문에서 다양한 의미로 발견, 적용되어 온 기능주의를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많은 학자들이 기능주의에 대한 자신의 논의를 펼치는데 있어 유추와 은유를 많이 사용하였는데, 이와 같은 유추는 기능적 입장을 지지하는 주장을 탐구할 때 하나의 출발점으로 쓰이는 3가지로 분류, 통합될 수 있다. 즉, 기계적 유추(mechanical analogy), 유기적 유추(organic analogy), 도덕적 유추(moral analogy)가 그것이다.²⁾

기계적 유추는 미, 또는 조형적 완벽함이란 가장 완벽한 기계적 능률에 그 기본을 둔다는 것을 의미한다. Le Corbusier는 “집이란 살기 위한 기계”라고 하여 절충적인 접근보다는 “엔지니어의 미학”을 더 높이 평가했다.³⁾ 의심할 여지없이, 기계적 유추는 산업혁명과 그 성과, 즉 고도로 완벽해진 기계류의 발전과 관련되어 있다. 또한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재료의 등장과 이에 따른 과거로부터의 단절이라는 반전통성과 대량 생산에 의한 제품의 획일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유기적 유추는 자연의 미와 그 완벽성에 대한 신념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자연은 건축가들에게 영감의 주요 근원이 된다. 유기적 건축의 주장자들은 유기적 형태에서 전체뿐만 아니라 각 부분들이 그 기능을 따른다는 가정에 바탕을 두고서 건축도 마찬가지로 유기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⁴⁾ 다시 말해서 건축 작품을 살아있는 유기체로 간주하여 이 안에서 모든 부분은 그 구조와 기능과 동일한 리듬을 따라야만 한다는 주장이다.⁵⁾ 이러한 유추는 Lamarck, Erasmus, C. R. Darwin 및 그 밖의 18세기 및 19세기 학자의 생물학 이론의 결과에서

강한 자극을 받았으며, 진화론과 확고하게 관련되어 있다.⁶⁾

도덕적 유추는 건축은 사람의 도덕적 혹은 윤리적 이상을 반영하고 그것에 공헌해야만 한다는 입장으로, 건물은 진실 되어야만 하며 불성실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⁷⁾ 이 개념은 A. Loos에 의해서 시작되었으며, 그는 현대건축에서 장식을 사회에 대한 죄악으로 간주하였다.⁸⁾ Horatio Greenough (1805-1852)는 고전부흥의 전통 속에서 무엇보다도 그리스 예술을 존경⁹⁾하였으며, 건축에 대한 세가지의 잘못된 접근 방법인 절충주의, 건물의 여러가지 기능을 하나의 일반적인 형식에 강제로 밀어넣는 것, 그리고 외형을 시선, 연상, 혹은 유행만을 위해서 채택하는 것 등을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외형을 구조와 일치하도록 만드는 것을 첫째 조건으로 하며, 목적에 적합하고 이성과 상식에 바탕을 둔 건축을 존중하는 관점이다. 이는 외부의 장식에 의해서 감추어진 내부에로의 관심의 전환이며, 단순과 순수를 존중하여 실용성을 강조하며, 인간성 회복의 의미를 내포한다. 이로 인해 도덕적 유추는 무장식성과 순수성의 미적 가치를 갖는다.

간단히 요약하면, 건축디자인에 있어서 기능주의에 대한 유추는 첫째, 기계미학에 바탕을 두고 조형적 완벽함이란 가장 완벽한 기계적 능률에 그 기본을 둔다는 입장인 기계적 유추, 둘째, 자연의 미와 자연의 완벽성에 대한 신념에 바탕을 두고 꾸미지 않는 모든 조형물을 살아있는 유기체로 간주하여 이 안의 모든 부분들은 그 구조와 기능과 동일한 리듬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기적 유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전함과 정지함, 진실함에 그 신념의 바탕을 두고 실용성을 강조하며 인간성 회복의 의미를 내포하는 도덕적 유추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여러 학자들이 언급한 기능주의에 대한 여러 유추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기능주의에 대한 유추

기능주의 유추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정의	기능주의에 대한 유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형적 유희가 배제되어야 한다.: 디자인 대사전 - 전통적이며 역사적인 패턴에 반한다. : 디자인 대사전 - 단순성은 예술에서 바람직한 것: Pliny - 단순하고, 정직하고, 직접적이며, 목적에 잘 부합되어야 한다.: G. H. Marcus - 표준화되고 기계를 사용하여 대량으로 생산되어야 한다.: G. H. Marcus - 조형적 완벽함이란 가장 완벽한 기계적 능력에 그 기본을 둔다. : de Zurko 	<p>▶기계적 유추: 기계적 능력, 산업혁명, 새로운 소재의 사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체의 개념을 배척하고 요소간의 상호작용이라는 견지에서 대상을 파악 : 두산세계대백과 - 자연은 건축가들에게 영감의 주요 근원이 된다. : de Zurko 	<p>▶유기적 유추: 자연의 미, 동일한 리듬장소와 환경에 반응한 성장, 생물학적 기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은 사람의 도덕적 혹은 윤리적 이상을 반영해야 한다. : de Zurko - 구조가 빌딩의 목적을 표현한다. : 디자인 대사전 - 적합성 = 유용성= 아름다운 사물 : Socrates, Plato, Aberti - 실용성을 최우선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 디자인 대사전 - 무장식주의 : A. Loose - 단순성은 예술에서 바람직한 것 : Pliny - 단순하고, 정직하고, 직접적이며, 목적에 잘 부합되어야 한다. : G. H. Marcus - 순수주의 : Bernard - 선한 것 = 아름다운 것 : Xenophon 	<p>▶도덕적 유추: 목적과 시대의 진실한 표현, 재료와 구조체계의 정직한 사용</p>

2. 기능주의의 미적 가치와 조형성

위에서 살펴본 기능주의에 대한 3가지 유추, 기계적 유추, 유기적 유추, 도덕적 유추가 건축 및 제품디자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형적 특성을 통해 미적 가치를 표현하는지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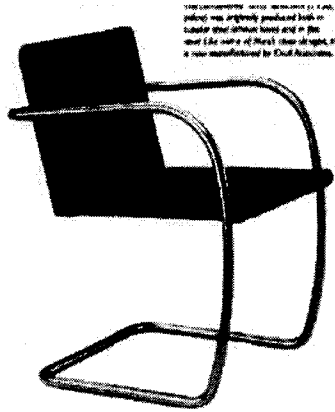
1) 기계적 유추

20세기 초 기능주의 디자인의 대표적 특성은 '형(0)에서 시작하는 것'이었다. 즉 기하학적 형태와 구성을 중시하는 한편 자연주의적 사실주의와 역사주의의 모든 기억을 거부하였다.¹⁰⁾ 이러한 반전통성은 기계미를 추구한 20세기의 기계미학으로 인해 과거로부터 단절하여 미래지향적 성향을 보였던 기능주의 특성으로, 역사적 모델을 직접적으로 모방하지 않아 새롭고 비전통적이었던 20세기 초반의 건축의 상당부분을 설명한다.¹¹⁾

런던의 수정궁(Crystal Palace)과 파리의 에펠탑으로 시작된 기능주의 건축은 새로운 재료의 사용으로 형태에 있어서 과거의 것과는 확연히 다른 단

절된 반전통성을 보여주며, 형태가 기능을 표현하면 동시에 아름답다는 기능주의 사고를 표현한다. 반전통성을 대표하는 조형적 특성은 크게 신소재인 금속과 신기술인 기계로 설명될 수 있다. 1925년에 배관공의 도움으로 디자인한 Marcel Breuer의 철제 클럽 의자는 20세기 디자인의 큰 전환점이 되었다. 이는 모던 가구의 새로운 언어로 신소재인 철을 최초로 소개한 것이다. 또한 Mart Stam이 발명한 캔틸레버¹²⁾(cantilever)의 원리로 디자인된 의자 [사진1]을 예로 들 수 있다.¹³⁾ Richard Herre가 도이체 베르크분트(Deutsche Werkbund)에서의 전시회 "Die Form"을 위해 디자인한 포스터 [사진2]는 규칙적인 상업적 장비, 단계적 크기의 화병과 돌출한 스타일의 글씨체의 사용으로 이 전시회가 기하학적이고 반복적인 스타일의 작품들의, 익명의 작가에 의해 제작된, 산업적 형태의 전시회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¹⁴⁾

기능주의 디자인은 기술의 발전과 산업혁명으로 인한 공장에서의 대량생산과 표준화의 결과로 획일성이라는 조형적 특성을 갖는다.



[사진1] cantilevers 원리로 디자인된 의자, 1930
Sparke, Penny. *A Century of Design: Design Pioneers of the 20th Century* (New York: Barron's, 1998), p.92.



[사진2] 직선과 원의 추상미, 1927
Marcus, G. H. *op. cit.*, p.118.

2) 유기적 유추

유기적 건축의 주창자들은 유기적 유추에서 전체 뿐 아니라 각 부분들이 그 기능에 따른다는 가정에 바탕을 두고서 건축도 마찬가지로 유기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Gottfried Semper는 예술작품과 자연의 작품을 많이 비교했으며, 자연은 단순히 그 외적인 형태 뿐 아니라 그 원리 때문에 영감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였다.¹⁵⁾ 유기적 유추는 André Lurçat의 저술에서도 나타나는데, “우리는 건축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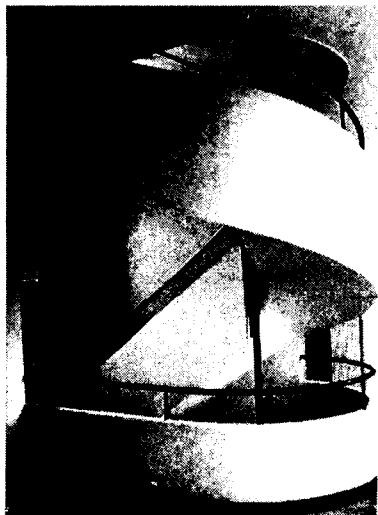
품을 살아있는 유기체로 간주할 수 있다. 이 안에서 모든 부분은 그 구조나 기능과 동일한 리듬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¹⁶⁾

유기적 건축은 통일된 이론적 기반을 지니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 특성을 지닌다. 첫째, 자연적 요소로서의 건축으로 합리적이고 증성적인 백색 혹은 기본 원색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따뜻한 색조를 이용한다. 강철이나 유리와 같은 인공적인 재료를 그다지 이용하지 않고 오히려 돌, 나무, 벽돌, 그리고 필요하다면 콘크리트와 같은 자연재료를 보다 많이 이용한다. 둘째, 개인화된 요소로서의 건축으로 건물을 지배하는 경제적 여건, 입지 조건, 건축주의 심리적 요구사항 등에 있어서 다양하게 반응한다. 이에 모든 사람들의 기본요구사항이 동일하다는 합리주의 특유의 가설은 포기되어야 하며 반대로 중요시하는 것은 각 경우마다 서로 다른 정서적 요소이다. 이러한 태도는 무수한 디자인의 원형인 각도, 곡선이나 유동적인 형태, 그리고 황금비에 전혀 의거하지 않는 자유로운 비례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다양한 형태의 취급으로 표현된다. 이 디자인은 장식을 힘에 겨워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친 과다 장식만을 포기하는 단순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셋째, 주택은 그 건물의 평면, 그 주변환경, 건축주의 성격에 의해서 그 성격이 결정될 뿐 아니라 그 건물이 세워지는 대지나 그 건물이 뿌리를 두고 있는 전통에 의해서 성격이 지배된다. 이것은 재료의 선택, 구조방식의 선택, 조형언어의 선택 등에 있어서 명백히 나타난다.¹⁷⁾

이와 같은 유기적 유추가 표현하고자 하는 미적 가치는 안이 곧 밖이 되는 열린 구조의 개념이나 전체를 구성하는 모든 부분들이 전체적 형태나 구조와 동일한 리듬을 가져야 한다는 상호관련성, 자연적 요소를 중시하여 자연의 형을 디자인에 적용시켜 차갑고 비인간적인 기계미에 따뜻한 인간적인 요소를 도입하려는 시도인 인간성, 그리고 건축에 있어서 정신적인 측면을 중시하여 개인적인 취향을 고려하는 경향으로 기계적 유추의 획일성과 상반되는 개념인 다양성으로 정리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3가지 특성, 상호관련성, 인간성, 다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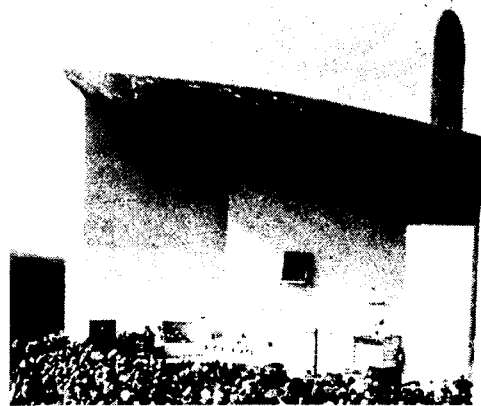
모두 단순성에 바탕을 둔 디자인 형태를 고집하는데, 이는 자연을 중시하지만 다분히 과학적 사고와 연루된 진화론과 같은 이론에서 시작된 개념이며, 자연을 아름답게 보는 이유는 자연 자체가 그 나름대로의 역할과 기능을 갖기 때문이라는 기능주의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기적 유추의 개념은 기계적 유추와 상반되는 듯이 보이지만 엄연히 기능주의 미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사진3]은 '밝은 시간들'이라고 불리는 Le Corbusier가 표현하고자 하는 진정한 건축을 보여주는데, 자연의 형태에서 영감을 받아 매끄러운 곡선으로 표현된 계단은 열린 공간을 중시하는 그의 성향을 엿볼 수 있는 건축물이다. 그가 설계한 룡상 성당 [사진4]는 십자가를 토대로 했으나 비대칭으로 설계되었다. 기둥과 콘크리트 들보 구조가 빈 소라껍데기 또는 비행기의 두꺼운 날개처럼 생긴 지붕을 떠받치고 있다. 이 지붕은 표면을 다듬지 않은 콘크리트로 만든 것이다. 그는 이에 대해 훗날 계 깎데기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성당은 유난히 벽면이 넓은데, 벽들은 곡선형이고 경사진 부분은 무너진 교회에서 나온 벽들과 벽을 쌓아서 만들었다.



[사진3] Le Corbusier의 계단디자인, 1931
장 자제르, 『르 코르뷔지에: 인간을 위한 건축』, 김교신 역, (서울, 시공사, 1999), p.54.

유기적 유추는 결국 기계를 바탕으로 한 기계미학에 인간과 자연적 요소를 가미하려는 기능주의의 또 다른 모습으로 기계미만을 유일한 미로 간주하는 기계적 유추와는 구별되는 기능주의의 일굴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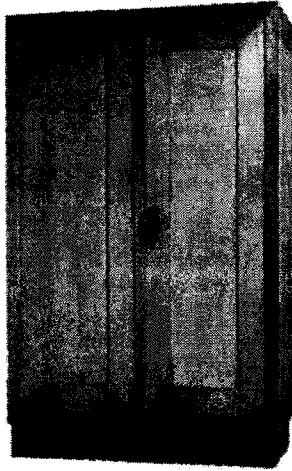
[사진4] 룡상성당, 1957
장 자제르, *op. cit.*, p.83.

3) 도덕적 유추

19세기가 장식의 적합성에 대한 논란의 시기였다면, 20세기는 장식을 버림으로써 그 논쟁을 불식시킨 시기였다. 이 발전의 중심지는 오스트리아와 독일이었다. 비엔나 건축가인 A. Loos는 "문화의 진화란 매일 사용하는 물건에서 장식을 제거하는 것"¹⁸⁾이라 하였다.¹⁹⁾

기능주의의 도덕적 유추에서 건축은 사람의 도덕적 혹은 윤리적 이상을 반영하고 그것에 공헌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건물은 진실 되어야만 하며 불성실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형태는 보이는 그대로 이어야하며 재료와 구조체계는 정직하게 사용되어야만 하며 솔직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이는 외부장식에서 내부구조로의 관심의 전환이며 실용성을 중시하는 경향이다. 그러므로 도덕적 유추를 표현하는 디자인은 과도한 장식을 제거하고 실제적 기능에 대한 간절한 요구에서 발생된 무장식성이 두드러진 특성으로 나타나는데, 확실한 기능이 없는 부분은 구조물에서 제거되어야 한다는 신념 하에 불필요한 장식을 없애고 재료의 속성 자

체에 중점을 두는 디자인을 중시²⁰⁾하는 입장을 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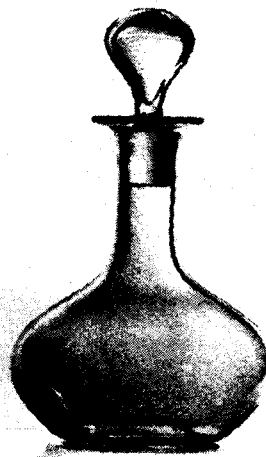
[사진5] 합목적성이 나타나는 가구 디자인, 1901
 Marcus, G. H. *op. cit.*, p.47.

다시 말해서 도덕적 유희는 조형물을 통해 합목적성과 순수성이라는 미적 가치를 표출한다. [사진5]와 [사진6]은 도덕적 유희의 기능주의 디자인이 갖는 조형적 특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형태는 보여지는 그대로이며, 재료의 속성이 한치의 꾸밈이나 거짓없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요약하면, 기계적 유희는 기하학적 형태와 구성을 중시하는 한편 자연주의적 사실주의와 역사주의의 모든 기억을 거부하며 20세기 기계 미학으로 인해 과거로부터 단절하여 미래지향적 성향을 띠는 반전통성과 대량생산과 표준화의 결과로 이윤의 극대화와 경제적 효율성에 목표를 둔 생산방식에서 유래하는 확일성이라는 미적 가치를 내포한다. 유기적 유희가 표현하고자 하는 미적 가치는 안이 곧 밖이 되는 열린 구조의 개념이나 전체를 구성하는 모든 부분들이 전체적 형태나 구조와 동일한 리듬을 가져야 한다는 상호관련성, 자연적 요소를 중시하여 자연의 형을 디자인에 적용시켜 차갑고 비인간적인 기계미에 따듯한 인간적인 요소를 도입하려는 시도인 인간성, 그리고 건축에 있어

서 정신적인 측면을 중시하여 개인적인 취향을 고려하는 경향으로 기계적 유희의 확일성과 상반되는 개념인 다양성으로 정리될 수 있다. 도덕적 유희는 조형물을 통해 그 디자인이 목적에 적합하여 시대의 진실한 표현이 되는 합목적성과 불필요한 장식 없이 외형이 그 구조와 일치하여 재질에 충실한 순수성이라는 미적 가치를 표출한다.

건축 및 제품 디자인에 표현된 기능주의의 미적 가치와 조형성은 <표 3>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이를 기초로 하여 다음에서는 패션디자인에 나타나는 기능주의의 조형적 특성에 대해서 고찰해 보자 한다.



[사진6] 재료에 충실한 디자인, 1856
 Marcus, G. H. *op. cit.*, p.51.

III. 기능주의 패션디자인의 미적 가치와 조형성

미술운동, 특히 John Ruskin과 William Morris의 미학운동과 예술 민주화 운동의 영향은 복식에서도 뚜렷이 나타났다. 정홍숙은 '아르 누보(Art Nouveau)와 아르 데코(Art Deco) 예술양식을 통해 본 복식의 조형 예술성에 관한 연구'에서 아르 누보와 아르 데코 영향기의 복식에 나타난 특성을

복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축, 회화, 조각 및 공예 등의 조형예술 장르에 나타난 두 양식의 특성과 비교 미학적 방법으로 비교한 결과 조형요소인 실루엣, 선, 색채, 재질 등의 면에서 상호간에 유사성이 입증되었다고 하였다.²¹⁾

패션디자인에서도 건축 및 제품디자인과 마찬가지로 1920년대를 전후로 기능주의 특성이 그 절정에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기능주의에서 추구하는 민주화, 기능화, 가속화는 그 당시의 현대화와 자유를 구가하는 사회의 욕구에 의한 것이었다. 1925년에 파리에서 열린 '민국 장식 박람회(Exposition des Arts Décoratifs)'는 예술을 사회생활에 도입하려는 시도로 전 세계의 장식 예술가가 동원되어 건축에서부터 시작하여 의상은 물론 그릇에 이르는 여러 분야에 걸친 전시회로서 모더니즘을 강조한 입체적이고 기하학적인 경향을 강하게 나타냈다. '합리화, 장식으로부터의 해방, 구조적 기능의 강조, 강렬하고 경제적인 해결에의 집중'이라는 Hiller의 표현처럼 이 박람회로 말미암아 모든 예술이 공업생산품과의 결합으로 유도되어 생활양식에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되었다.²²⁾

패션디자인에서의 기능주의는 Paul Poiret, Gabrielle Chanel, Madeleine Vionnet로 이어지면서 단순화의 개념으로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복식형태에서의 기능화 현상은 기계의 발달로 인해 실용적인 여성복의 대량생산이 가능해짐에 따라 획기적인 의류산업의 발달을 가능케 했다. 그러므로 의류산업에서는 기능주의를 20세기의 주된 개념²³⁾으로 정의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20세기 패션디자인의 주된 개념인 기능주의를 앞에서 고찰한 건축 및 제품디자인에서의 기능주의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고찰하고자, 기계적 유추, 유기적 유추, 도덕적 유추의 기능주의에서 표현된 반전통성, 획일성, 상호관련성, 인간성, 다양성, 합목적성, 순수성이 패션디자인에서는 어떠한 조형적 특성으로 표현되었는가를 구체적 사례를 들어 고찰하고자 한다.

1. 기계적 유추

1920년대의 국제적인 경향의 기능주의는 패션디자인에서도 다른 디자인과 유사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기능주의는 타 디자인 분야와 공통적으로 동시대적인 인간의 생활양식, 가치와 사고를 반영하고 있어서 그 조형성에 있어서 기하학적 형태와 구성을 중시하는 한편 기계미학을 중시하는 미래지향적 성향으로 새로운 재료를 많이 사용하였다. 또한 기계에 의한 대량생산으로 불필요한 구성을 제거하고 구체적으로 정확하며 효율적인 형태적 특성을 지닌다.

아르누보 시대의 부를 과시하는 과도한 치장과 장식에서 벗어나 복식에서의 순수성과 평면성을 중시하여 기계생산으로 실루엣이나 모티브의 기하학적인 단순성을 특징으로 하는 기성복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였다. 자본주의 산업문명의 발전은 이미 19세 말의 주목할 만한 직물의 기술적 혁신을 배경으로 재봉틀 및 합성섬유, 염료, 패턴의 발달, 기성복 발전을 가속화시켰으며, 기성복은 대량생산에 의해 그 획일성과 빠른 보급을 따라 복장상의 신분과 직업, 연령들의 구별을 없애면서 패션의 민주화를 실현하였다. 드디어 패션은 소수의 상층부에 국한되지 않고 더 넓은 사회계층을 대상으로 형성되면서 대중화가 실현되어 현대복식의 성격을 띄게 되었다. 이 시기 여성의 사회진출은 전체 복식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1870년대 이후 여성복의 간소화, 또 남성화라는 대담한 변혁은 여성의 생활환경의 변화에서 기인한 것이다.

여성들의 활발한 사회 진출로 스커트의 길이가 드디어 마루를 떠나 짧아지게 되어 테일러드 수트(tailored suit)로 정립되고 색상도 실질적인 검정색, 갈색, 회색 계통을 많이 사용하였다. 기계 생산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해진 기성복은 테일러드 수트의 형태로 과거에 비해 획일적인 형태이지만 대중에게 패션을 보급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1920년경까지는 로 웨이스트(low waist)의 어느 정도 직선적인 실루엣이 유행되고 있었는데 이 경향은 더욱 강화되어 여자다움의 특징을 일부러 피한 패션디자인이 유행했다. 이것은 가슴은 납작하게 하

고 허리 곡선을 완화시킨 튜블라(tubular) 실루엣으로 스커트의 길이가 무릎 근처에 오거나 남성복을 모방한 이른바 보이쉬(boyish) 스타일이라고 하며, 이 스타일은 1924년까지 유행했다. 남자처럼 바지를 입는 것이 눈에 띈 것도 이때부터라 하겠다. 1920년대 자동차의 보급과 함께 여성의 스포츠 열은 높아지고 바지는 스포츠웨어로 필수품이 되었다. 긴 바지, 바지형 치마, 짧은 바지 등이 두드러지게 유행하여 여성의 바지 착용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었다.²⁴⁾

20세기 예술과 의상을 집목시킨 거대한 촉매자로서 P. Poiret는 의상에서 기능주의를 출발시켰다. 수세기 동안 인체를 구속하였던 코르셋의 제거로 인체에 자유와 활동적인 기능성을 안겨주었으며²⁵⁾ 이것은 1920년대의 G. Chanel에 이어지면서 한층 더 단순해져서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실용적인 옷의 극치를 이루었다. 1906년경을 기점으로 하여 여자복식은 이제까지의 풍만한 가슴, 가는 허리, 넓어지는 스커트로 이어지는 아우어글래스(hourglass) 실루엣이 아닌 보다 직선적인 실루엣의 날씬한 모양으로 변하게 된다. 그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스커트에 있어서 변화로 P. Poiret는 S 스타일의 절정기였던 1904년에 여자의 미를 의복으로 싸고 감추는 데서 찾지 않고, 자연스러운 몸의 곡선을 그대로 드러내는 데서 여자만의 우아한 아름다움을 살리려고 했다.

1914년 이후 아르누보에 대한 반대 현상으로 사각 형태(square form)가 나타났듯이, 1950년대 후반에 이르면 사각 형태가 둥근 형태를 내몰기 시작한다. 이러한 변화는 심지어 여성 몸매의 선호도에 도 잘 반영되어 나타나 있다. 루벤시안(Rubensian) 타입은 1914년 이전에 유행되었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1920년대에는 ‘남자 같은 건달아가씨(boyish flapper)’의 도래를 보아왔다. G. Chanel의 ‘little black dress [사진7]’은 길고 좁은 소매의 단순한 실루엣으로 기하학적인 선과 검정 색으로 색채를 거부한 것은 큐비즘 운동과 연관이 된다. Jean Patou 또한 G. Chanel과 함께 당시 기능적이고 단순한 여성복 모드를 대표한 디자이너로 그는 특히 프랑스 주심의 꾸뛰르에 새로운 개념의 완숙한 단

순성을 주어 이와 미국의 기성복(ready to wear)에 실질적인 연결을 맺게 해준 사람이었다. [사진8]은 Caroline Charles의 1960년 수트 디자인으로 기하학적인 선과 절제된 색의 사용으로 기계적 유추의 기능주의 디자인의 전형이다. 그는 의복이 입을 수 있으며, 유용하며, 잘 맞는가 등 의복의 기능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사진7] G. Chanel의 블랙드레스, 1926



[사진8] C. Charles의 기하학적인 수트, 1960
The Fashion Book (London: Phaidon Press Limited, 1998), p.99.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직물의 개발은 20세기 패션디자인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1960년대 방수, 방풍 소재의 개발은 스키복의 형태에 큰 변화를 가져와 가벼운 방풍 나일론의 모자 달린 스키 재킷이 크게 유행했다. 신축성이 뛰어난 스트레치사와 스판덱스의 개발은 몸에 밀착되어 몸매를 드러내는 대담한 수영복의 유행을 가져왔으며, 운동에 대한 열기와 함께 스판덱스 사이클 반바지와 러닝 슈즈는 1970년 매우 인기 있는 패션 아이템으로 등장했다.



[사진] 신소재를 사용한 수영복 디자인, 1968

C. R. Milbank. *New York Fashion: the Evolution of American Style* (New York: Harry N. Abrams, Inc., Publishers, 1996), p.245.

의복에 자주 사용되지 않는 독특한 재료를 패션에 도입한 디자이너로 Paco Rabanne과 Rudi Gernreich을 들 수 있다. 이들은 특별히 스포츠에 영향받지 않았으나 독특한 미래지향적 디자인 세계를 표현했다. 이들이 왕성하게 활동한 1960년대는 인간이 우주탐험을 최초로 시작한 시기였으며 기술혁명과 우주시대의 개막의 영향으로 우주시대 패션이 유행했다. 과거의 과다한 장식성에서 벗어나 단순화된 형태로 플라스틱, 유리, 비닐, 라이크라 등 다양한 새로운 소재를 사용하여 아방가르드

(avant-garde) 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성향을 보였다. R. Gernreich은 과거의 수영복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수영복 [사진]을 소개하였는데, 몸에 붙는 스타일로 탄력성 있는 섬유의 발전으로 기하학적인 선과 직사각형의 형태를 갖는다.

2. 유기적 유추

20세기 초 기능주의 특성인 반전통성과 획일성과 함께 인간성과 개성도 중시하는 유기적 유추에 중심을 두는 기능주의가 20세기 중반에 들어서 패션디자인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지나치게 획일적이며 무미건조한 기계적 유추에 식상하고 질려버린 대중들에게 보다 인간적이며 자연적인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기 위한 시도였다.

그러므로, 기능주의에서 강조되었던 획일성보다는 다양한 영감과 좀더 부드럽고 따뜻한 재질을 사용하는 특성을 비교적 강하게 나타내었다. 팝 아트의 영향으로 소비문화를 사랑하고 도시와 기술의 문화를 애호하는데서 시작된 쉽게 웃어버릴 수 있는 유머와 재치, 새로운 경험을 통하여 생동감을 강조하는 청소년 문화를 많이 반영하고 있다. 콜라주, 낙서기법, 노출, 일상용품의 활용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으며 착장법이 착용자에 의해 응용되어 기존 패션법칙을 파괴하고, 소재의 새로운 조합 등으로 자유롭게 표현되었다.

1960년대를 지나면서 패션디자인에서 기존의 질서를 무시하는 반(反) 패션(anti-fashion) 및 전위적인 형태로 가치와 무가치가 쉽게 뒤바뀌고 여성적인 것과 반여성적인 것 등의 의미에 가치를 두지 않으므로 오히려 여성적인 것, 반여성적인 것, 민속적인 것 등이 무질서하게 나타나는 복잡한 양상을 보이며 남, 녀의 차이를 두지 않고 인체를 다른 각도로 표현하려는 기발한 것의 나열과 진지하고 뛰어난 것과 하찮고 어린에 같은 것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기계적 유추의 기능주의에 역행하는 디자인의 경향으로 1980년대에 강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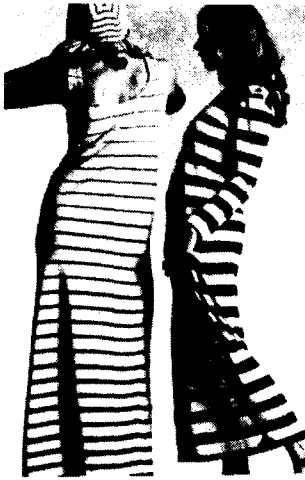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극단적인 기능주의에 역행하는 디자인의 경향 가운데, 유기적 유추의 기능주의 디



[사진10] 유기적 곡선을 사용한 드레스 디자인, 1960 Sparke, P. *op. cit.*, p.207.



[사진12] 1950년대 수영복 디자인 Milbank, C. R. *Couture* (New York: Stewart, Tabori & Chang Books, 1985), p.192.



[사진11] 부분이 전체의 선을 따르는 리듬을 지니는 드레스 디자인, 1967 Baudot, François. *Fashion: The Twentieth Century* (London: Thames and Hudson, 1999), p.212..

자인은 실제적인 기능의 충족을 그 전제 조건으로 하며, 기계적 유추의 기능주의에서 좀 더 자연적이며 인간적인 모습을 되찾으려는 노력의 표현이다. 의복을 인체를 구속하는 닫힌 공간이 아닌 주변과

상호 작용하는 열린 공간으로 인식하며, 내부의 형태는 전체의 형과 그 기능에 따르는 방향으로 표현 되었으며, 자연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좀더 부드러운 자연의 형을 의복에 적용시켰다. 또한 확실적인 기계적 유추에 개인적 취향은 물론 주관적이며 심리적인 기능까지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개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다양하게 표현된다. 포스트모더니즘의 패션디자인이 실제적이며 객관적인 물리적인 기능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무시하고 단지 감성만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개된 것과는 달리 유기적 유추의 기능주의 디자인은 기계와 자연을, 기계와 인간을 조화 융합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자연적인 선과 형을 표현하였지만 형과 선, 색의 사용에 있어서 모두 의도되고 계획되어 적용되었다. 질서정연함을 강조하였으며, 엄격함과 질서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감정의 만족도 추구했다.

[사진10]은 Vuokko Nurmesniemi의 드레스 디자인으로 신체를 구속하지 않고 압박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실루엣을 지니며, 내부의 곡선들은 이와 함께 하는 리듬을 지닌다. 자유스러운 곡선이지만 기계적으로 질서정연하다. 이와 유사한 조형적 특성을 [사진11]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형식적이고 쓸모 없는 구성은 모두 배제되었으며 동시에 기계적

인 딱딱함보다는 부드러움이 느껴진다. [사진12]는 Tina Leser의 1950년대 수영복 디자인으로 주변의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따뜻함을 표현한다. 기계적인 인공 재료보다는 모직과 니트와 같은 천연 재료를 사용하여 주위의 환경인 자연과 조화를 이룬다.

이와 같이 유기적 유추의 기능주의 디자인은 편안하며 활동적이어서 인간의 활동과 신체를 전혀 구속하지 않는 형과 실루엣을 지니며, 인공 섬유보다는 천연 섬유를 사용하고 젊음을 반영한다.

3. 도덕적 유추

외형을 구조와 일치하게 만드는 것, 목적에 적합함과 이성을 증시하는 동시에 실용성을 증시하는 도덕적 유추의 기능주의 또한 패션디자인에서 강하게 표출되었다.

G. Chanel은 “나는 나의 시대를 충분히 만끽하여 살았던 첫 번째 여성”²⁶⁾이라고 장담했을 정도로 기능주의 문화를 충분히 향유하여 복식으로 표현하였다.²⁷⁾ 의상을 살펴보면 초기부터 그녀는 본능적으로 요구되는 것을 숨김없이 그대로 표현함으로써 옷에서 자유로움과 실용성, 기능성을 단순한 조형으로 성취할 수 있었다. 그녀는 Honoré de Balzac의 ‘단순함에 의한 사치스러움’이란 이론을 의복철학에 대입시켰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단순성은 필요 없는 사실이나 장식의 배제이다.²⁸⁾ 즉 직물이나 스타일에 있어서 어떠한 종류의 왜곡적 표현도 완전히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상철학은 Bauhaus 운동의 합목적성 및 선과 장식의 엄격한 순수성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G. Chanel의 이러한 기능성에 대한 추구는 팬츠를 스포츠 웨어가 아닌 정장과 캐주얼웨어로 등장시킴으로써 여성해방, 유니섹스화, 캐주얼화를 꾀하였다.

이것은 계획된 단순성에 의해 순수한 미를 표현하는 것으로 장식은 기능적 구조를 위해 과감하게 제거되었고 새로운 비례와 리듬으로 의복을 재구성하였으며 새로운 소재와 기술이 등장하게 되었다.²⁹⁾ 단순성을 추구하는 디자인 사조는 소위 바이어스 컷(bias-cut)을 고안한 M. Vionnet로 이어져

이 획기적인 재단방식에 의하여 옷감은 더욱 섬세하고 치밀하게 여성 인체에 입혀지게 되었다. 지금까지 언급한 G. Chanel, J. Patou, M. Vionnet 등은 대표적인 기능주의자들로서 초기의 소위 순수파(purist)³⁰⁾ 작가 군을 형성한다.

흔히 패션의 건축가라 일컫는 Cristobal Balenciaga도 작품 성향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단순성을 추구한 디자이너였으며 그가 은퇴하기까지 30여년 간 드라마틱한 단순성³¹⁾을 추구한 파리 꾸뛰르의 마지막 인물이었다. 그는 완벽성과 단순성을 디자인의 목적으로 삼고 장식의 절제와 형태의 조화를 중요시하며 모든 디테일을 거부하면서도 나름대로의 독특한 조형성을 발휘하여 다양한 기하학적인 형태를 의상에서 실현하였다[사진13]. 20세기 초 이러한 기능주의 패션의 흐름은 중반의 André Courrèges, R. Gernreich, Mary Quant, Yves Saint Laurant 등으로 이어져 1990년대 들어서 새로운 모습의 기능주의로 우리들 앞에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남성의 전유물이었던 스포츠가 여성에게도 참여와 관람의 기회



[사진13] Balenciaga의 무장식적 디자인
Braddock, S. E. and O'Mahony, M.
Techno Textile: Revolutionary Fabrics For Fashion Design (London: Thames and Hudson, 1998), p.67.



[사진14] 여성을 위한 사냥복 디자인, 1926
Milbank, C. R. *op. cit.*, p.82.



[사진15] 단순한 모직 드레스, 1973
Baudot, François. *op. cit.*, p.261.

가 많아지기 시작하자 스포츠 자체를 위한 의복 뿐만 아니라 스포츠 관객을 위한 의복도 발생하여 단순하고 장식성 없는 목적에 부합되는 의복이 유행하였다[사진14]. 단순한 실루엣과 함께 직선의 사각

형이 지배적이었으며 장식보다는 직물 자체의 선을 중시하였다. [사진15]는 James Galanos의 모직 드레스이다. 클래식 스타일로 편안하고 활동적인 현대 여성을 위한 디자인으로 형태는 보이는 그대로, 시대의 필요와 의복의 목적을 진실하게 표현하고 있다. 재료와 구조체계 또한 정직하게 사용되어 실용성이 매우 중시된 디자인이다. 불필요한 모든 장식이 제거되었으며 보이는 그대로의 형과 선, 그리고 재료에 충실한 특성으로 순수성을 표출하는 기능주의 패션디자인이다.

20세기 기능주의 패션디자인의 미적 가치와 조형적 특성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IV. 20세기 기능주의의 패션디자인과 건축 및 제품디자인의 비교 고찰

기능주의 패션디자인은 전반적으로 건축 및 제품디자인에서 유사한 조형성을 가지고 표현되었다. 20세기 기능주의 디자인에서 기계적 유추와 도덕적 유추의 미적 가치인 반전통성, 획일성, 합목적성, 순수성은 직선적인 선과 형의 사용, 장식을 배제하고 재료에 충실하는 경향, 흰색, 검정 색, 회색 등 절제된 색의 사용, 표현의 익명성, 표준화되고 모듈화된 규격 등의 특성을 가지고 표현되었다. 상호관련성, 인간성, 다양성을 표출하는 유기적 유추의 기능주의는 기계적 유추의 기능주의에 자연성과 인간성을 가미하기 위해 유기적이며, 자연적인 형을 사용하는 특징을 갖고 개인적이며 심리적인 기능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딱딱하며 획일적인 선과 형을 좀더 부드럽게 표현하려는 시도로 표현되었다. 재료도 차갑고 기계적인 인공 재료보다는 자연 재료를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패션디자인에서는 인체의 자유와 움직임을 고려하여 코르셋을 제거하고, 일반적 유행을 무시하는 여성복의 남성화와 단순화 경향을 보이며, 미래지향적인 디자인과 우주시대의 패션을 표현한다. 또한 기성복의 출현으로 패션의 민주화를 가능하게

<표 2> 20세기 기능주의 패션디자인의 미적 가치와 조형성

기능주의의 유추 미적 가치와 조형성		기계적 유추	유기적 유추	도덕적 유추
미적 가치		반전통성 획일성	상호관련성 인간성 다양성	합목적성 순수성
조형성	실루엣	직선적 실루엣 날씬한 모양 직사각형의 형태	인체의 선을 드러내는 실루엣 자연스러운 실루엣	절제와 조화된 실루엣 기하학적 형태 사각, 단순한 실루엣
	선	직선 단순한 선 기하학적인 선	유기적이고 복잡한 선 절충적인 선 자연스러운 선	간결한 선 직선 기하학적 선
	색채	검은색, 갈색, 회색	따뜻한 색 자연의 색	간결한 색상 단순한 색
	재질	새로운 소재: 합성섬유, 스판덱스 플라스틱, 유리, 비닐, 라이크라, 방풍 방수소재	천연 소재	특징적인 재질의 사용보다는 순수한 재질 자체의 특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경향
기법		코르셋의 제거 - 인체의 자유와 움직임 고려 일반 유행의 무시 - 남성화, 여성복의 단순화 기계생산으로 인한 대량생산과 기성복의 보급	위치전환 패치워크 인체의 곡선을 드러냄	장식의 배제 왜곡된 표현의 배제 유니섹스화 캐주얼화
디자이너		P. Poiret G. Chanel M. Vionnet P. Rabanne R. Gernreich J. Patou	M. McFadden Y. S. Laurant	Balenciaga G. Chanel M. Vionnet

한다. 기계생산에 의한 대량생산과 표준화, 익명성 그리고 획일화라는 측면에서 건축 및 제품디자인과 패션디자인은 서로 공통성을 갖는다. 또한 건축 및 제품디자인에서 모듈식 생산과 교환가능성은 패션디자인에서 기성복의 생산과 미국 기능주의 패션디자인의 특성인 스포츠웨어의 믹스 앤 매치 (mix & match) 개념의 대두로 설명되어 같은 맥락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비교의 결과는 아래의 <표 3>으로 정리될 수 있다. 구체적 예를 살펴보면, 기계적 유추를 표현하는 디자인에서 주로 사용된 선은 직선, 반복적인 선, 기하학적인 선을 사용하고 있으며, 패션디자인에서는 또한 기하학적이고 반복적인 선의 사용으

로 나타난다. [사진1]과 [사진2], [사진7]과 [사진9]는 기하학적이고 직선적인 형의 사용이라는 점에서, 신소재를 사용하여 새로운 기계적인 곡선미를 표출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갖는다. 복식에 있어서 형이란 바디스(bodice)나 소매, 칼라 등 의복의 부분을 구성하는 형과 패턴을 이루는 형이 있다. 이러한 형에 의한 순수성은 바디스, 소매, 칼라 등 디테일의 형이 완만한 곡선이나 단순한 기하학적인 도형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러나 형은 선이 모여서 이루어진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선에 의한 최소표현과 중복된다고도 볼 수 있다. 그 외에 패턴에 있어서는 [사진8]에서 볼 수 있듯이 추상적이고 기하학적인 패턴이나 현대적 감

각의 복식에서 흔히 보이는 스트라이프, 체크 등의 기하학적 패턴이 있다.

기계적 유추에서 색은 주로 무채색이 사용되었으며, 원색이 강조색으로 부분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또한 기계미학을 대표하는 금속을 표현하는 차가운 색과 빛나는 색이 자주 사용되었다. 패션디자인에서는 검정색, 갈색, 회색 등의 단색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세 디자인 분야 모두에서 여러 색을 혼합하여 쓰기보다는 주로 한 가지의 무채색을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패션디자인보다는 특히 건축 및 제품디자인에서 차갑고 빛나는 금속 색의 사용이 강조되었다. [사진1]과 [사진6]을 살펴보면 미래지향성을 강하게 표출하기 위한 차갑고 빛나는 금속성의 색상과 유리와 같은 재료의 사용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여기서 신소재의 사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건축 및 제품디자인에서는 금속, 철, 유리, 보강 콘크리트 등의 신소재를, 패션디자인에서는 스판덱스, 플라스틱, 비닐, 라이크라, 방풍 방수 직물 등의 신소재를 사용했다. 이러한 신소재의 사용은 소재의 특성을 있는 그대로 효과적으로 보이기 위한 순수하고 정확한 형태의 사용과 관련된다.

20세기 초 건축 및 제품디자인에서 과거의 지나치고 불필요한 장식을 제거하고 제품의 진실된 실체적 기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형을 드러내는 경향과 패션디자인에서 코르셋을 제거하고 여성의 신체를 해방시켜 의복 아래 숨겨진 인체를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실루엣을 선호한 것은 서로 공통되는 흐름이라 할 수 있다. 유기적 유추를 중시하는 기능주의 경향으로 모든 영역에서 기계와 인간을, 인간과 자연을 조화롭게 하는 디자인 또한 시도되었다. 특히, 자연스러운 인체의 선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선의 전개가 이루어졌다. 여자의 미를 의복으로 감싸고 은폐하는 데서 찾았던 과거와는 달리 20세기에 들어서는 인체에 대한 어떠한 왜곡이나 은폐 없이 자연스러운 몸의 곡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데서 여자만의 우아한 아름다움을 살리려고 했다. 이러한 디자인의 경향은 신축성이 있는 신소재의 개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진4]와 [사진12]는 기계적 유추의 기능주의에서의 딱딱하

고 획일적인 기하학적인 형과 선의 사용에서 약간은 벗어나 따뜻한 자연의 형과 색상을 보여준다. 또한 [사진3]과 [사진10]은 [사진1], [사진5], [사진7]과 [사진15]와 비교하여 분명, 절제된 선과 색의 사용이라는 측면에서는 조형적으로 유사성을 가지므로써 기능주의의 테두리 안에 존재하나 비교적 자유로운 비례의 사용과 유기적 곡선의 사용으로 좀 더 다양한 형태를 보여준다. 이때 사용된 유기적인 곡선은 기계적 유추의 지나친 획일성과 인간성 상실에 반하여 자연을 절대적인 미로 간주하며 인간성 회복이라는 상징성을 표출한다. 유기적 유추의 표현을 위해 건축 및 제품디자인에서는 자연적인 유기적인 선을, 패션디자인에서도 유기적이고 자유로운 선을 사용하여 서로 그 조형성이 유사하다.

유기적 유추에서 패션디자인과 건축 및 제품디자인 모두 공통적으로 자연적 색채를 사용하였는데, 기계적 유추의 차갑고 무미 건조한 기계중심의 표현에서 좀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인간 중심의 표현의 경향이다. 그리고 재료의 사용에 있어서도 인공적인 재료보다는 자연의 재료를 선호한다. [사진4]와 [사진12]를 보면 콘크리트와 니트라는 새로운 소재를 사용했으나 표면은 다듬어지지 않은 느낌과 자연을 연상시킨다. 재질이 차갑기보다는 따뜻한 느낌으로 서로 유사성을 갖는다.

복식에 있어서 선이라 함은 실루엣과 내부구조선을 생각할 수 있다. 도덕적 유추의 기능주의에서 선을 살펴보면 G. Chanel 등이 즐겨 사용한 저지나 니트 등 유연한 소재의 인체를 따라 흐르는 완만한 곡선을 쉽게 발견한다. 인체를 왜곡하거나 과장하지 않고 인체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드러내는 아주 완만한 거의 직선적인 곡선을 의미한다. 또한 H 혹은 A 라인의 미니드레스에서 보이는 직선 혹은 사선의 단순한 기하학적 선 또한 특징적이다. 다프나 솔기 등 내부 구조선의 사용을 가급적 절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검은색 드레스 [사진13]과 [사진15]는 선을 통해 순수성을 표현하는 도덕적 유추의 기능주의 조형성을 잘 표현하고 있다.

도덕적 유추의 기능주의는 색채에 있어서도 색의 사용을 절제하며 최소한의 색을 사용하는 경향

<표 3> 기능주의 패션디자인과 건축 및 제품디자인의 비교 고찰

기능주의 유추 조형성	기계적 유추: 반전동성과 획일성		유기적 유추: 상호관련성, 인간성, 다양성		도덕적 유추: 합목적성과 순수성	
	건축·제품	패션디자인	건축·제품	패션디자인	건축·제품	패션디자인
형태	순수한 형태 표준화된 형태 정확한 형태 사각형, 삼각형 원, 육방체, 구, 피라미드	직선적 실루엣 튤라 실루엣 날씬한 모양 직사각형의 형태	자유로운 형 유선형	자연스러운 실루엣	단순한 형	절제된 실루엣 기하학적 형태 사각, 단순한 실루엣
선	직선 반복된 선 기하학적 선	직선, 단순한 기하학적 선	자연적 유기적 선	자연스러운 인체의 선 유기적인 선 부드러운 선	단순하고 절제된 선	간결한 선 직선 기하학적 선
색채	무채색 흰색 차가운 색 빛나는 색	검은색, 갈색, 회색	자연적 색 따뜻한 색	자연색	검은색, 흰색	단색의 사용
재질	보강 콘크리트 신소재 금속, 철 신축성있는 직물	새로운 소재: 스판덱스 플라스틱, 유리, 비닐, 라이크라, 방풍 방수소재	자연 재료	천연 섬유	재료에 충실	재료, 직물에 충실
기법	도구의 정확성 기계생산 대량생산 표준화 모듈식 교환가능성 익명성	코르셋의 제거 일반 유행의 무시 남성화, 여성복의 단순화	부드러운 표현	남녀복식의 혼용 동양복식의 형태미	명백한 표현 실재적 기능의 부각 불필요한 장식의 제거	장식의 배제 예곡된 표현의 배제 여성해방 유니섹스화 캐주얼화

이 발견된다. 최소표현이 추구되었던 60년대에 단순한 형태에 선명한 흰색이 유행의 주된 경향이였으며 미니멀리즘 복식이 유행의 한 테마로 등장하는 20세기에는 순수한 이미지의 흰색이 유행하기도 한다. 색채에 의한 최소표현은 의복의 한 아이템 내에서 그리고 착장시 각 의복 아이템 간의 단일색의 추구를 의미한다. 최근 한가지 색상만으로 이루어진 컬렉션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도 한 예가 될 수 있다. 재질에 있어서 최소 표현이라 하면 단순한 재질의 직물로 이루어진 의복을 생각할 수 있다. 20세기에 들어서는 직물에 있어 과도한 수공예적 장식에서 벗어나 직물표면을 그대로 드러내는 단순한 재질감의 의복으로 전환하였으며

기계에 의한 대량생산 체제는 이를 더욱 자극하였다. [사진6]과 [사진15] 또한 선과 형에 있어서 선과 장식을 최대한으로 절제하여 그 재질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표출하는 디자인의 예이다. 인체에 밀착되는 얇고 탄력성 있는 소재에 의해 인체의 외곽선을 그대로 드러내는 경우와 인체의 자연스러운 곡선과 피부표면을 비쳐 보이게 하는 얇고 투명한 재질에 의한 경우 또한 순수 기능주의의 재질에서의 조형적 특성이 될 수 있다.

20세기 기능주의 패션디자인과 건축 및 제품디자인의 비교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대체적으로 유사한 조형성을 통해서 표현되나,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인 3가지 유추 모두의 기법, 기계적 유추

의 재질과 유기적 유추의 선 사용법에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20세기의 전반적 문화현상은 기능주의로 설명될 수 있다. 합목적성, 실용성 등 실제적 기능 뿐 아니라 인간성, 다양성 등의 개념적 기능까지도 충족시키는 디자인 제품을 새로운 기술과 대량생산을 통해 모든 대중에게 공급한다는 디자인의 민주화를 이상으로 하는 기능주의는 미래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 결과 기능주의 패션디자인의 조형적 특성과 기능주의의 세 가지 유추 중 특히, 유기적 유추에 주목할 만하다.

첫째, 기능주의 패션디자인과 건축 및 제품디자인에 대한 비교 고찰 결과 <표 3>에서 보여지듯이 기능주의의 미적 가치를 전반적으로 유사한 조형성을 통해 표현하고 있으나, 패션디자인은 건축 및 제품디자인과는 구별되는 특성이 있다. 코르셋의 제거, 인체의 자연스러움을 중시, 남녀복식의 혼용, 여성복의 남성화, 의복의 캐주얼화 등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인체, 디자인 착장 방식,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더 깊은 연관성을 갖는 특성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타 디자인과 비교하여 패션디자인은 물리적 혹은 정신적으로 인체의 활동과 더욱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이다.

둘째, 유기적 유추의 기능주의에 대해 자세히 고찰한 결과 그 미적 가치와 조형성의 측면에서 현재까지 많은 연구에서 반(反) 기능주의로 고려되어 온 포스트모더니즘과 유사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물론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해 현재 시점에서 정의 내리기란 매우 어려운 작업이지만, 포스트모더니즘의 한 단면과 유기적 유추의 기능주의를 서로 관련시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유기적 유추의 기능주의는 디자인이 제공하는 물리적, 실제적 기능에 심리적, 정서적 요소를 가미하여 주관적 기능까지도 충족시키기 위한 기술의 인간화를 추구하는 기능주의의 경향으로, 새로운 테크놀로지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유기적 유추의 기능

주의는 1980년대 이후 기능주의의 특성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례분석 과정에서 20세기 말 1990년대의 기능주의는 20세기초 기능주의와 조금은 다른 특성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W. Gropius를 위시한 기능주의 건축가와 디자이너들은 그들의 작업에 상징적 요소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으나 포스트모더니즘의 대가인 Robert Venturi와 Denise Scott은 이를 지적했다. “기능주의 건축은 ‘기능적’이라기 보다는 ‘상징적’이다. 그것은 ‘상징적으로 기능적’이다. 기능에서 유래한다기 보다는 기능을 표현한다. 기능적으로 작용한다기 보다는 기능적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기능이란 1920년대 문화적 맥락에서 중요한 상징이기 때문이다.”³²⁾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20세기초의 기능주의에서의 순수했던 기능의 실용적 개념은 점차 다른 의미를 내포하기 시작하면서 변화, 확장되어 갔다. 이러한 시각에서 1990년대 기능주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언급되고 있는 기능주의는 현대 미술에서부터 현대 음악에 이르는 모든 예술 영역에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패션디자인의 기능주의 현상을 고찰함에 있어서 제품디자인과 건축디자인과의 비교 분석으로 연구 내용을 제한하였음을 밝혀 둔다. 그 이유는 패션디자인은 인간의 신체를 보호하고 더욱 아름답게 하는 기능을, 제품은 구체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도와주는 기능을, 건축은 살기 위한 주거 공간으로써의 기능을 하여 패션, 제품, 건축디자인은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데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건축디자인은 기능주의가 최초로 강하게 부각된 디자인 영역이기도 하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더 나아가 제품 및 건축디자인 이외의 디자인 분야 혹은 타 시각 예술 분야에서의 기능주의와 패션디자인에서의 기능주의에 대한 비교 연구 또한 현대의 패션디자인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1) V. Fischer, *Design Now*, Munich: Prestel-Verlag, 1989.
- 2) 이는 E. R. de Zurko, 『기능주의 이론의 계보』에 수록된 분류이나, 다른 많은 기능주의학자들의 저서에서도 기계적, 유기적, 도덕적 유추와 관련한 언급을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 3) E. R. de Zurko, *기능주의 이론의 계보*, 지연순(역), 서울: 세진사, 1997, p.7.
- 4) Ibid., p.18.
- 5) Andre Lurçat, *Architecture*, Paris: Au Sana Pareil, 1929, p.158.
- 6) Egbert, Donald D., "The Idea of Organic Expression", *Evolutionary Thought in America*,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50), pp.336-97.
- 7) E. R. de Zurko, op. cit., p.19.
- 8) Ibid., p.20.
- 9) Greenough, *Form and Func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47, p.22, 65, 67.
- 10) 사노 히로시, 21세기의 디자인, 현동희, 강화선(역), 서울: 태학원, 1997, p.100.
- 11) George H. Marcus, *Functionalist Design On Going History*, New York: Prestel, 1995, p.20.
- 12) 한쪽만 고정된 보
- 13) George H. Marcus, op. cit., p.112.
- 14) Ibid., p.57.
- 15) Gottfried Semper, *Der Stil in den technischen und tektonischen Künsten, oder praktische Ästhetik*, Munich: Friedrich Bruckmann, 1878, vol. 2.
- 16) E. R. de Zurko, *기능주의이론의 계보*, op. cit., p.19.
- 17) M. Lampugnani, 윤재희, 지연순, *현대건축론*, 서울: 세진사, 1994, pp.114-118을 요약 정리.
- 18) Adolf Loos, "Ornament and Crime"[1908]: translated in *Arts Council of Great Britain. "The Architecture of Adolf Loos"*, n.p., 1985, p.100.
- 19) George H. Marcus, op. cit., p.48.
- 20) H. W. Janson, *Form Follows Function-or Does It? Modern design theory and the history of art*, Amsterdam: the Academische Pers, 1982, p.6.
- 21) 정홍숙, "아르누보(Art Nouveau)와 아르 데코(Art Deco) 예술양식을 통해 본 복식의 조형예술성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8.
- 22) 박명희, "1920년대 샤넬의상과 큐비즘". *건대생활문화 연구소, 연구보고 11*, 1988, p.74.
- 23) Helen, L. Brookman, *The Theory of Fashion Design*,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1965, p.67.
- 24) 정홍숙,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1999, p.369.
- 25) 박명희, "변천하는 여성미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중앙의학*, 50, 1986, pp.117-119.
- 26) C. R. Milbank, *Couture*, New York: Stewart, Tabori & Chang Books, 1985, p.120.
- 27) 박명희, "1920년대 샤넬의상과 큐비즘", op. cit., pp.73-87.
- 28) Ruth Lynam, *Couture*, New York: Doublday Garden City, 1972, p.118.
- 29) 박해원, "Paul Poiret의 Modernism",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1988, p.13.
- 30) C. R. Milbank, op. cit.
- 31) P. Glynn, *In Fashion*,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1979, p.36.
- 32) Robert Venturi and Denise Scott Brown, "Functionalism, Yes But", statement for the symposium "The Pathos of Functionalism", Berlin, 1974, in *Architecture and Urbanism 47* (November 1974), p.33.